

안전교육 중심으로 무재해 사업장 이룩



동명산업(주) 박재환 사장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신규 채용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IMF이후 노동인력이 정규직보다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운영하면서 이직율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수시채용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또한 주 3회이상 실시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법정교육이 형식에 치우치거나, 아예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 증가와 3개월 미만의 미숙련공의 재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교육을 중심으로 하여 무재해를 이룬 사업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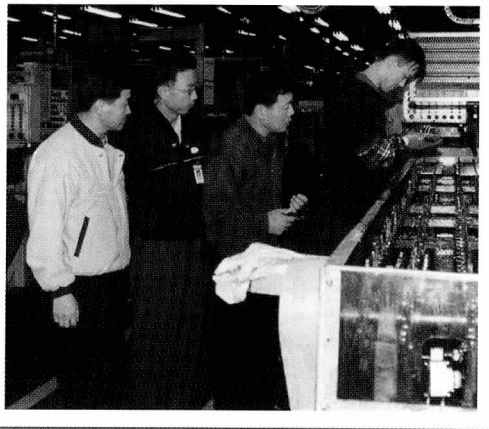
동명산업(박재환 사장)이 바로 이 곳이다. 동

명산업은 냉장고용 COMPRESSOR 부품가공을 하는 인도급업체로써 1999년 3월 창업하여 현재 48명의 종업원이 현장 일선에서 종사하는 작지만

알찬 기업으로 연간 800만대의 생산을 하고 있다. LG전자창원공장의 협력사안전보건지원정책과 대한산업안전협회의 기술지원으로 안전보건의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 모범적인 기업이기도 하다.

이 회사는 소규모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수시로 모집되는 신규채용자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자되어야 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실직적인 교육보다는 형식적인 교육에 치우게 된다.



▲현장 안전점검

이에 박재환 사장은 『이것이 아니다』, 『혁신적 사고로 교육의 방법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라고 늘 강조하였고, 드디어 동명산업에서 소규모 사업장에 적합한 교육을 개발하게 되어 전국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도 입상을 하기도 하였다.

이 교육의 특징은

첫째 교재 부분

피교육 대상자의 안전의식 수준을 ZERO BASE 수준으로 하여 누구나 보기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현장사진을 활용하였으며, 현장에서의 불안정한행동, 불안정한상태 등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어 신규채용자 본인이 근무하고자 하는 작업장에서의 잠재위험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지식교육보다는 근로자의 태도를 바꾸는데 초점을 맞췄고, 또한 매분기별 아차사 고사례 발표회를 거쳐 우수한 내용을 계속적으로 교재에 삽입함으로써 질적향상을 꾀하고 있다.

둘째 자기학습

자체 개발한 교재를 통해 경영자가 직접 신규 채용자에 대해 안전교육요령을 설명하고, 교재에 대해 학습한다. 학습이 끝나는 마지막단계에서는 경영자가 직접 질의 응답식으로 올바른 교육방향을 설정해 준다.

셋째 체험학습

자기학습을 통과한 직원에 대해 담당자가 진행하는 OJT 현장 체험학습이다. 이 과정에서는 그동안 교육에 대한 학습효과를 파악한 후 미흡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학습효과를 극대화 시켜, 작업안전을 확보하고,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단계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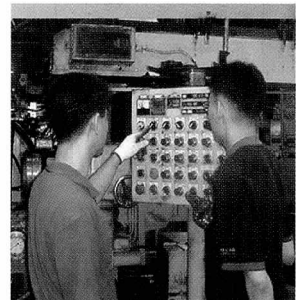
넷째 사후관리

아차사고사례 발표회를 매분기마다 개최하고, 지속적인 사원면담, 현장점검을 시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유지시키고, 결과물에 대해서는 교육 교재에 추가시켜 교재의 질을 향상시킨다.

그 외 동명산업은 1인 모탈 위험예지훈련, 잠재위험함께찾기운동, 안전점검의 날 운영, 안전지킴이 활동, NWC CARD운영, EVENT별 안전활동, 취약시간대(야간, 새벽)의 특별 점검활동 등 연중 시행하는 안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결과 동명산업은 교육 프로그램 도입전인 1999년 재해가 13건이 발생하였으나,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한 건의 재해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교육의 흥미도와 교육 숙지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시행전보다 각각 87%(74%상승), 85%(55% 상승)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동명산업은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을 LG전사내 협력사 전체에 보급·적용시키고, 2001년도에는 사외 소규모 사업장에 보급, 2002년도에는 해외에까지 본 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

동명산업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경영자의 의지와 모든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무재해 현장을 이룩하여 소규모 사업장 최초로 무재해 사업장의 역사를 이룩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현장 OJT 교육▶